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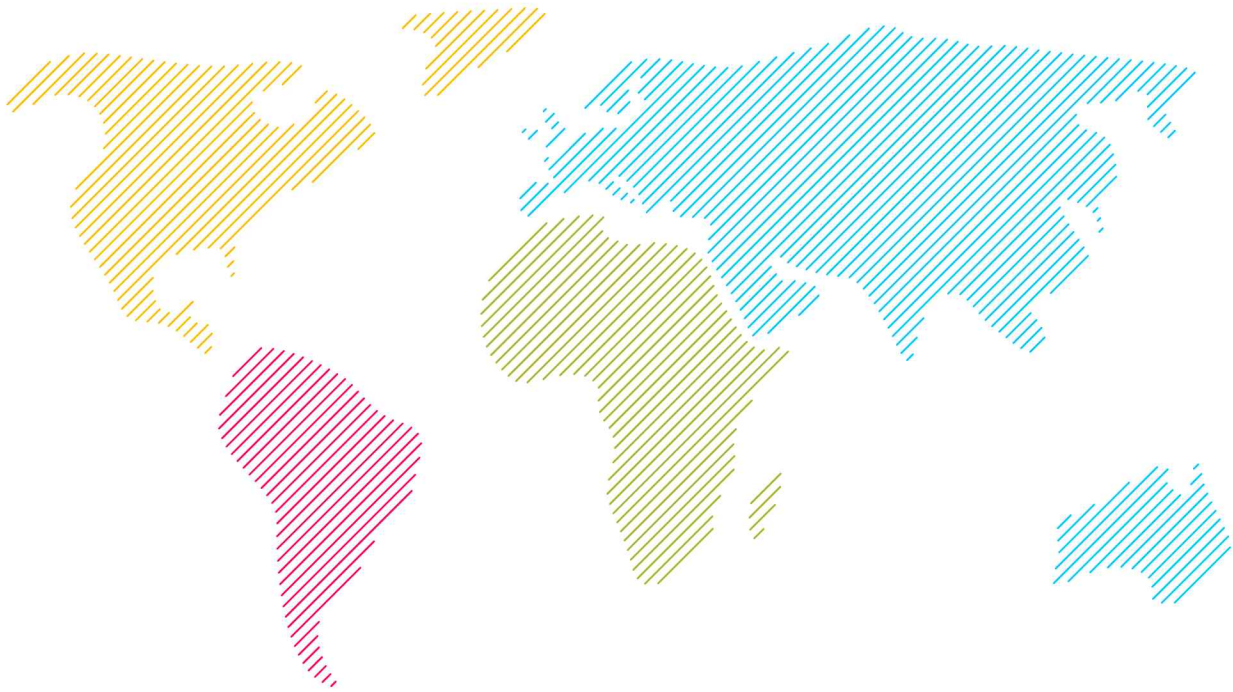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중점지역의 추진동향과 시사점

김홍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박진희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허유미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중점지역의 추진동향과 시사점

요약

- ▶ 중국 각 지방정부는 국가 핵심 어젠다인 ‘일대일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하에 각종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2015년 3월 이래 31개 성시(省市) 중 28개 지방정부에서 ‘일대일로’ 관련 실시방안(实施方案) 및 투자계획을 발표
 - 해외 산업력과 관련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별 협력계획을 수립
 - 국가 중점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공동 추진하고, 국책은행과 국가기금에서도 적극 지원
- ▶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 지역인 신장(新疆), 랴오닝(辽宁), 산시(陕西)는 각각 국제화물철도 운송 활성화, 과잉생산업종의 해외진출, 해외 협력사업을 강조
 - 서북 변방에 위치하여 8개국과 국경을 접한 신장은 중국 국제화물열차의 핵심 경유지로서 중국 3대 경제권과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이으며 특히 8대 수출입가공기지 건설에 가장 많은 투자를 계획
 - 동북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한 랴오닝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을 통해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고 과잉생산업종 및 비교우위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산업협력을 추진
 - 서북지역의 관문인 산시는 산시발 국제화물열차인 창안호(长安号)의 안정적인 운영 확대를 도모하고 국가 간 협력사업인 중·러 실크로드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 건설과 지역 국책은행과의 협력하에 에너지자원·장비제조 등 분야의 해외투자 진행
- ▶ 푸젠(福建)과 광시(广西)는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으로서 대아세안 협력을 강조
 -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푸젠은 2016~20년 교통인프라 건설에 약 5,9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아세안 해양협력센터, 중·아세안 수산물 거래소 등 어업 관련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와 가장 근접한 지역인 광시는 중·아세안 국가 간 협의체를 통해 중·아세안 해운물류정보센터 등 다수의 국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상뿐 아니라 육로를 통한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강화
- ▶ 장쑤(江苏), 후난(湖南), 산둥(山东)은 한국과의 관계, 지자체의 적극성 등의 측면에서 협력이 유망한 지역으로서 장쑤는 복합운송기지 구축, 후난은 해외 산업진출, 산둥은 해양협력과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각각 중점 과업으로 추진
 - 대외개방도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장쑤는 댜윈강을 중심으로 중·카자흐스탄 물류기지, 국제화물철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와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잇는 국제화물 중계기지로 발전코자 함.
 - 중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후난은 지역우위산업인 장비제조,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협력을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약 3,600억 위안 규모의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
 -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긴밀한 산둥은 한국~산둥~신장~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복합운송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가해양국과 공동으로 아세안과 동북아 3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건설을 추진할 계획
- ▶ 한국은 산둥, 랴오닝, 신장, 후난성 등 전략지역과 인프라·물류·의료·문화콘텐츠 등 경쟁우위분야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협력사업 및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방안 모색이 긴급



차 례

1. '일대일로' 추진경과

- 가. 중앙 차원
- 나. 지방 차원

2.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주요 지역

- 가. 신장(新疆):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중추지역
- 나. 랴오닝(辽宁): 중·몽·러 경제회랑의 동북지역 주요 거점
- 다. 산시(陕西): 실크로드 경제권의 신(新)기점

3.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지역

- 가. 푸젠(福建):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
- 나. 광시(广西): 중국 서남부 지역발전의 신(新)전략거점

4. 유망전략지역

- 가. 장쑤(江西): 신유라시아대륙교와 황해를 잇는 물류기지 구축
- 나. 후난(湖南): 장비제조·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다. 산둥(山东): 동아시아 교통물류·해양협력 허브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일대일로' 추진경과

가. 중앙 차원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이하 '일대일로')¹⁾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큰 틀로 하여 중국 및 연선국가 간 교통·물류를 연결하고 44억 명 인구나 시장을 통합하려는 거대한 국가전략임.²⁾
 -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 주석이 해외 순방 연설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이른바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을 제안하였고, 2013년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국가전략으로 승격됨.
 -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외교부, 상무부에서 공동으로 정책문건(『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여 '일대일로' 구축의 의의, 목표, 방식에 대해 제시
 - 국가발개위는 2015년 연내 각 지방정부에게 '일대일로' 관련 지역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할 것을 지시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관련 실시방안(实施方案)을 마련
 - 2015년 5월 국무원은 해외 산업협력 관련 정책문건(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을 발표, 중점 협력업종과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어 국가발개위가 순차적으로 18개 성시(省市)와 관련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진출 기업과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³⁾
 - 이는 중국 국내 과잉생산업종을 해외 이전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산업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발개위에서 국가차원의 양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 국가별 협력계획을 수립하며 투자기금 설립을 통해 지방정부의 해외투자 협력을 지원할 계획임.
- 중앙정부는 ① 서북 및 동북지역 ② 서남지역 ③ 연해지역과 홍콩, 마카오 및 대만 ④ 내륙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 및 역할을 부여(표 1 참고).
 - '일대일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은 전체 31개 성시(省市)의 절반이 넘는 18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북부의 헤이룽장(黑龙江)과 내이멍구(内蒙古), 동부의 저장(浙江)과 광둥(广东), 서부의 신장(新疆)과 윈난(云南)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다수 접경 지역이 모두 포함(그림 1 참고).
 - 이 중 신장과 푸젠은 각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지역이며 광시는 일대(一帶)와 일로(一路)를 연결하는 핵심거점으로 지정되었음.
 - 특히 광시에 대해서는 아세안 국가와의 육해(陸海) 접경 우위 특성을 고려하여 북부만 경제구와 시장(西江)-주장(珠江) 경제권 개발을 가속화하고 서남부 지역 발전의 신 전략거점으로 발전할 것을 강조⁴⁾

1)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는 일대(一帶)와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는 일로(一路)를 합친 단어로 중국정부에서 '일대일로' 관련 'strategy', 'project' 등 혼재된 표기를 '이니셔티브(倡议: initiative)'로 통일함. (자료: 이희옥(2016),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2) KIEP 북경사무소(2016. 4. 19),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행보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3) 国务院(2015. 5. 31),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国家发改委已与18省份建立推进国际产能合作委省协同机制』(2016. 3. 15), 中国改革报.

4) 赵可金(2016b), 『广西可将“一带”与“一路”有机衔接』, 凤凰国际智库.

- 18개 성시(省市) 외에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청두(成都), 정저우(鄭州), 우한(武漢) 등을 내륙개방 거점도시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중국 전역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림 1. '일대일로' 대상 18개 지역 분포도



주: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에 언급된 지역 중 31개 성시(省市)에 해당하는 지역 기준이며, 성(省)의 하급 행정구역인 지급시 단위 제외.

자료: 노수연(2015), 「중국 '일대일로' 주요 지역의 투자환경과 활용전략: 5개 성(省)을 중심으로」.

표 1. '일대일로' 관련 지역 및 역할

지역 구분	관련 지역*	역할
서북 및 동북지역	신장(新疆), 산시(陝西), 간쑤(甘肅), 닝샤(寧夏), 칭하이(青海), 내이멍구(內蒙古),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 러시아 등 對북방 개방의 주요 통로
서남지역	광시(廣西), 윈난(雲南), 시짱(西藏)	△ 동남아, 서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메콩강 소지 역경제협력(GMS)의 배후센터 구축 △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간 연결
연해지역	푸젠(福建),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 해상 실크로드 건설의 선도자 △ 새로운 개방 경제체제 메커니즘 창조
내륙지역	충칭(重慶)	△ 서부개발·개방의 중요 거점, 내륙 개방형 경제지역 조성 △ 동부·서부를 연결시키는 운송 통로 구축

주: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에 언급된 지역 중 31개 성시(省市)에 해당하는 지역 기준이며, 성(省)의 하급 행정구역인 지급시 단위 제외.

자료: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2015),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나. 지방차원

■ 2016년 9월 기준 31개 성시(省市) 중 신장, 후난, 쓰촨 등 28개 지역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 중 일부 지역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 주안점을 발표한 뒤 전문(全文)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친 뒤 공표(부표 참고).

- 후난, 쓰촨 등 18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지역과 푸젠의 취안저우(泉州), 산시의 시안(西安), 장주의 련윈강(连云港) 등 주요 도시에서도 발표

- 본고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상 중요도 및 지방정부의 적극성, 한국과의 협력가능성을 고려하여 8개의 주요 지역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추진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 중앙정부 문건에서 명시된 18개 지역 중 '일대일로'의 핵심 사업인 6대 경제회랑 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문건을 발표한 지역을 선별함.
 -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주요 지역으로 신장, 랴오닝, 산시를, 해상 실크로드 관련 주요 지역으로 푸젠과 광시를 선정함.
 - 중앙정부 문건상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으나 31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정책을 발표한 후난과 한국과의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쑤, 산둥을 선정하였음.
 - 후난은 2015년 8월 이후 총 6건의 관련 문건을 발표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목록을 공표하여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
 - 장쑤는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1위(2011~15년 누계)이자 무역규모 2위인 지역(2015년 기준)으로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가장 왕성한 지역임.
 - 산둥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투자, 무역, 인적교류, 항공편, 해운노선 관련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

2.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주요 지역

가. 신장(新疆):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중추지역

- 중국 서북 변경지방에 위치한 신장은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대(對)중앙아시아 변경무역 거점이자 중국의 중앙아시아-유럽행 화물열차가 지나는 핵심 통로임.
 - 신장에 중국 석유의 22%가 매장되어 있고, 석탄, 철광석, 동, 금, 크롬, 니켈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해 이를 기반으로 화학, 철강, 전력 산업이 발전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우루무치(乌鲁木齐), 휘얼귀스(霍尔果斯), 아라산커우(阿拉山口) 등을 중심으로 변경무역이 활발
 - 중국 충칭, 시안(西安), 정저우(郑州), 이우(义乌) 등지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독일(뒤스부르크), 스페인(마드리드) 등지로 운행되는 국제 화물열차 대부분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아라산커우를 통해 중국 국경을 넘음.
- 신장은 '일대일로' 정책사업으로 '3대 통로, 3대 기지, 5대 중심지 구축'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인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역내 교통·상업·물류 거점으로 발전하는 데 집중
 - '3대 통로'는 육상 실크로드가 지나는 통로로 중국 3대 경제권과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이음.
 - 각각 △ 환발해지역에서 신장의 하미(哈密), 지무나이(吉木乃)를 거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쪽 통로 △ 창장 삼각주지역에서 신장의 하미, 우루무치, 아라산커우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통로 △ 주장삼각주지역에서 신장의 뤼창(若羌), 카스(喀什)를 거쳐 파키스탄 과다르항까지 이어지는 남쪽 통로를 가리킴.⁵⁾

- '3대 기지'는 석유·가스 생산 및 가공 기지, 석탄·화력발전·화공 기지, 풍력발전 기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러시아와 석유·천연가스 자원 개발 가공 및 수송 협력을 통해 기반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의 핵심 에너지기지로 발전하고자 함.
- '5대 중심지'는 교통, 상업·물류, 금융, 문화·과학, 의료 중심지를 가리키며, 이 중 교통, 상업·물류, 의료 분야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육상 실크로드 철도 노선의 각 구간 건설을 강화하고, 우루무치 국제공항의 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 등지 항로를 확대하며 우루무치~중앙아시아 및 유럽 직통 화물열차 편성을 확대
 - 중·카자흐스탄 국제변경협력센터, 카스 국제경제협력구, 중·유라시아 박람회 및 카스·중남아시아 상품교류회 등의 경제무역협력 플랫폼을 강화하며, 역내기업이 그루지야·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지에 경제무역협력단지를 건설해 제품, 노동력, 기술, 장비 수출을 확대하도록 장려
 - 대형 변경무역시장과 민간 호시(互市)무역⁶⁾시범지를 조성해 변경무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주변국으로 농산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 국경도시에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주변국가의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관광서비스를 육성

표 2. 신장자치구의 '일대일로' 관련 5대 중심지 건설 계획

구분	주요 내용
교통 중심지	△ 실크로드 교통 통로 구축: 육상 실크로드 철도 연결 강화, 우루무치 국제공항 확장 및 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 등지로의 항로 확대, 커우안(口岸·세관이 있는 국경통과지점) 인프라 강화 △ 우루무치-중앙아시아-유럽 직통 화물열차 확대, 우루무치와 주변 지역과의 교통망 연결 강화, 우루무치 내 BRT와 지하철 1~4호선 등 도시 내 공공교통망 확충, 컨테이너역 건설 △ 주변국과의 양자·다자 운송협정 확대, 국제운수 수속 간소화
상업·물류 중심지	△ 종합보세구 및 중·카자흐스탄 국제변경협력센터 건설 가속화, 카스 국제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중앙아시아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장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중·유라시아 박람회 및 카스·중남아시아 상품교류회 등 박람회 지속 추진 △ 국제상업물류 집산지·대형 변경무역시장 건설, 변경 민간 호시(互市)무역시범지 조성, 주변국과 농산물 신속 수출 통로 마련,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 역내 기업의 그루지야·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지 경제무역협력단지 건설 장려, 농산물 가공기업 해외진출 장려, 에너지·방직·선진제조·첨단기술·서비스업 분야 해외 투자 확대, 주변국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 △ 현대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 외자투자 장려
금융 중심지	△ 우루무치를 지역 금융중심지로 조성, 중·중앙아시아 국제 지역 금융센터로 육성 △ 실크로드 경제벨트 국제 융자·정산·지역 금융시장·외환교역 등 금융플랫폼 건설, 카스와 휘얼귀스 경제개발구에 위안화 국제업무 강화 △ 신장은행·신장재산보험회사 육성, 아연·에너지·면화·대추 등 대중상품(大宗商品) 거래소 건설
문화·과학 중심지	△ 신장 국제민족무도절, 중·외 문화전시주간, 해외 신장문화전시주간, 신장 국제예술비엔날레, 중·아시아유럽 출판박람회, 아시아·유럽 영화제 개최 △ 신장 예술센터·신장 국제방송센터·중앙아시아 고고연구센터 및 휘얼귀스·아라산커우·카스 등지에 국제문화교류센터 건설, 우루무치·투루판 문화산업단지 조성 △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지와 과학기술교류협력 추진, 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건설 △ 유학생 장학금 확대, 수출형 기업의 유학생 대상 장학금 프로젝트 추진 장려, 신장대학교 실크로드학원·신장의대 의학국제교류협력센터·카스대학교 국제교류협력원 등 개설
의료서비스 중심지	△ 민간자본의 의료기구 투자 장려, 국경도시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주변국가 환자 유치, 의료관광서비스 육성 △ 주변국과 의료보건 분야 인재 육성 교류 협력 확대, 중의학 의료기구의 해외진출 확대

자료: 新疆维吾尔自治区发展和改革委员会(2016. 8. 19), 「新疆维吾尔自治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5) 「今年新疆推进三大通道建设」(2015. 3. 30), 凤凰网.

6) 호시무역이란 접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관세 교역을 하는 것임.

- 신장의 '일대일로' 정책은 주도인 우루무치와 국경도시 아라산커우, 휘얼귀스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우루무치는 신장의 주도로서 유럽행 화물열차가 개통되고 중-유라시아 박람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등 사업이 집중
 - 2016년 5월 우루무치~독일 뒤스부르크 화물열차가 개통되어 신장에서 생산된 PVC 등 화학소재, 케첩, 식품첨가제 등의 상품을 운송 중
 - 국경도시 아라산커우는 중국 내륙 각 도시의 국제화물열차가 지나는 화물 거점으로서 화물운송 편리화에 노력하는 한편, 2014년 건설된 종합보세구를 통해 신장과 주변국의 원자재 수출 확대를 꾀함.⁷⁾
 - 국경도시 휘얼귀스는 중국이 카자흐스탄과 협력해 세운 물류단지 '중-카자흐스탄 국제변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 비자 및 화물 통관 절차 간소화,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임.

- 신장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 농산물수출생산기지, 식품수출가공기지, 방직의류수출가공기지, 화공제품수출가공기지, 에너지자원수입가공기지 등의 수출입 가공기지 건설 △ 인문교류 확대 △ 중-유라시아 박람회 및 중-카자흐스탄 국제변경협력센터와 같은 경제무역 협력플랫폼 건설에 집중

표 3. 신장자치구 실크로드 경제벨트 관련 투자계획

유형	투자건수(건)	총투자액(억 위안)	기 투자액(억 위안)
8대 수출입 가공기지	84	3,323.8	286.6
인문교류 강화	44	640.1	7.7
경제무역 협력플랫폼	47	528.4	33.2
기초시설	13	216.0	1.8
도시 임베디드 구도 개선(完善城镇嵌入式布局)	3	140.0	3.0
생태계보호	12	121.4	0.2
해외진출 전략실시	24	120.3	0.2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12	21.6	0.3
합계	239	5,111.5	333.1

자료: 新疆生产建设兵团(2016), 「兵团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重点项目清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 랴오닝(辽宁): 중-몽-러 경제회랑의 동북지역 주요 거점

- 랴오닝성은 산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이하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역할
 - 랴오닝은 장비제조, 석유화학, 야금 등 중국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기지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견인
 - 지란-헤이룽장-네이멍구 등 중국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해양으로 연결되어 한국 및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이 용이하고 남쪽으로는 징진지, 동쪽으로는 북한, 북쪽으로는 네이멍구와 인접해 있어 동북지역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의 중심지로 평가

7) 「阿拉山口综合保税区为一带一路添彩」(2016. 6. 1), 中国网.

- 이에 중국 6대 경제회랑 건설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선정,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전초기지이자 노후공업기지의 재진흥⁸⁾을 주도하는 동북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역할하고 있음.

■ 라오닝성 정부는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인프라 건설, 에너지자원 분야 등의 산업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 중-몽-러 경제회랑을 기반으로 하여 라오닝성과 유럽을 잇는 3대 대외무역 통로 건설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
- 라오닝성은 △ 러시아 극동지역 및 몽골 △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 아세안 및 남아시아 △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 유럽, 미국, 일본 및 한국과 장비제조, 건축자재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계획
- 장비제조, 전력, 건축자재, 야금, 화공, 농식품가공 등 비교우위산업을 중심으로 로컬 기업과 해외 하이테크 기업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자원개발-인프라 건설 및 운영 등 관련 협력과 서비스업 기업의 진출을 장려
- 또한 R&D 센터를 설립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공장 건설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수출 촉진방안을 모색

표 4. 라오닝성의 '일대일로' 주요 추진정책

구분	주요 내용		
교통-물류	[랴오멍오우(辽蒙欧·라오닝~몽골~유럽)] 라오닝성의 진저우항, 판진항, 단둥항에서 출발하여 몽골의 차이발상(Choibalsan)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 출해 통로 [랴오만오우(辽满欧·라오닝~네이멍구~유럽)] 라오닝성의 다롄항, 잉커우항, 판진항을 기점으로 하여 네이멍구의 만저우리, 유럽을 거쳐 유럽에 도달하는 물류 노선 [랴오하이오우(辽海欧·라오닝~해상~유럽)] 다롄항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 남태평양지역, 베링해협을 경유하여 노르웨이에 도달하는 동북지역의 중요한 북극 항로		
산업협력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석유화학 산업단지] 하이칭(海城)그룹을 필두로 러시아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석유화학 장비 수출 및 기술협력 추진 [카자흐스탄 위안다 산업단지] 위안다(远大)그룹이 중심이 되어 동유럽, 중앙아시아 시장에 건설자재 수출 도모 [몽골 휘터 산업단지] 철도 인프라를 활용하여 석탄산업, 광업, 운수업, 물류업 등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몽골과 경협 강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루마니아 라오닝 산업단지] 위위안(玉原)그룹을 필두로 중동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 라오닝 페로니켈 산업단지] 한왕(罕王)그룹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하여 철강, 전자재, 야금, 전력 등 산업설비 수출 도모 [인도 변전·그린에너지 산업단지] 동 산업단지를 발판으로 인도 신에너지 시장 진출 [우간다 라오닝 선양 산업단지] 중다(忠大)그룹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자동차, 가전기구, 전자재, 방직, 농식품가공 부문에서 산업협력 강화 및 자원개발 추진	
		자원개발	△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강, 목재, 유색금속, 비금속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한왕그룹, 산허(三和)그룹, 시양(西洋)그룹, 춘청(春成)그룹 등 라오닝성 로컬기업간 협력 지원 △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개발기지 건설 △ 자원 소모가 많은 제조업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장려
		기업의 해외진출	△ 로컬 기업의 철도, 도로, 공항, 발전소 등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장려 △ 해외 하이테크기업의 M&A를 통해 선진기술 흡수와 인재 유치 및 역내 우수 기업의 지분 인수

자료: 辽宁省人民政府办公厅(2015. 1. 21), 「关于贯彻落实“一带一路”战略推动企业“走出去”的指导意见」; 辽宁省人民政府(2015. 9. 12), 「辽宁省开放驱动战略实施方案的通知」; 「辽宁一带一路国际合作公司和乌干达辽沈工业园战略合作」(2016. 3. 25), 鳳凰遼寧; 「辽满欧”“辽蒙欧”“辽海欧”运输通道加速构建」(2015. 12. 27), 中国新闻网; KIEP 내부자료.

8) 라오닝성은 체제개혁 지체, 단일화된 경제구조, 인제 유출 등으로 성장둔화 국면이 지속되면서 중국 공업발전의 요람에서 노후 공업기지로 전락했으나, 2000년대부터 경기부양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며 노후 공업기지의 재진흥을 모색하고 있음.

- 다롄(大連)시는 랴오닝성의 해외시장 주요 진출 통로로서 철도 및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 환적기지 및 무역허브로의 도약을 도모
 - 다롄시는 '일대일로' 주변국가와 항공, 철도 등 교통인프라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다롄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화물철도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히 이른바 '삼성열차(三星班列)'⁹⁾를 필두로 '한국~중국~러시아 국제 물류 대동로' 건설을 중점 추진하여 다롄항을 동북아시아의 종합물류센터로 조성할 방침
 - 2016년 1월 27일 '삼성열차', 2016년 5월 18일 '민스크(Minsk) 열차', 2016년 7월 20일 '창청(長城) 열차', 2016년 8월 5일 중국 최초의 '냉동컨테이너열차'를 잇따라 개통하는 등 러시아 및 유럽행 화물열차 운영을 확대
 - '삼성열차'는 한국 인천항~다롄항~만주횡단철도(TMR)~시베리아횡단철도(TSR)~모스크바를 운송 경로로 하여 기존 운송 루트보다 15일이 단축됨(인천 출발 총 20일 소요).
 - '민스크 열차'는 다롄항을 출발해 벨라루스(Belarus) 민스크(Minsk)시에 소재한 중바이(中白)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현장을 중착지로 하는 노선임.
 - '창청열차'는 창청(長城)자동차 전용 대러시아 수출용 화물열차로 다롄항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며 운송 소요시간은 12일 정도임(총 길이 8,600km).¹⁰⁾
 - '냉동컨테이너열차'는 중국-러시아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냉동식품 운송을 위해 개통한 화물열차로,¹¹⁾ 과일, 야채 등 신선식품을 다롄항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운송(편도로 약 12일 소요)
 - 진푸신구(金普新区),¹²⁾ 중국(다롄)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중국(다롄) 자유무역시험구 등 대외개방 플랫폼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변 국가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촉진할 계획
 - 석유화학, 장비제조, IT, 농산물 가공 등 관련 제품, 브랜드, 기술표준의 해외시장 진출과 주요기업의 러시아, 몽골 등지의 인프라 건설 추진과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독려
 - 일본, 한국, 러시아 등지의 첨단제조업, 신산업, 서비스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일본, 한국, 러시아간 역외 위안화 결제 관련 금융서비스 협력을 도모

표 5. 다롄시의 주요 국가별 산업협력 분야

권역	국가(지역)	유망분야
아시아태평양	일본	스마트제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녹색식품, 금융, 의료, 양로, 신에너지자동차
	한국	바이오의약,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정밀기계, 의료
	홍콩	금융, 부동산, 석유화학, 물류
	대만	석유화학, 집적회로, 농업, 무역
	싱가포르	금융, 부동산, 석유화학, 조선, 해양플랜트
	말레이시아	무역, 부동산
	인도	정보산업
	호주	의료, 양로, 무역, 농업
	뉴질랜드	무역, 농업
유럽	독일	첨단장비, 스마트제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자동차부품
	영국	신에너지자동차, 금융, 문화, 신소재
	프랑스	금융, 투자, 문화, 교육

자료: 大連市人民政府办公厅(2016. 7. 28), 「关于印发大连市对接“一带一路”战略构建开放新格局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9) 2016년 1월 삼성전자, 중국 COSCO, 선양(瀋陽)철로국, 하얼빈(哈爾濱)철로국, 다롄항그룹이 '한·중·러 국제물류 루트 구축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개통식을 가졌으며 이번 국제물류 루트 개통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까지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중국·러시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중국 언론에서 '삼성열차'로 표기. 자료: 「三星班列」启程 开启中韩俄国际物流大通道(2016. 1. 27), 中新网; 「인천항-유럽 잇는 '한·중·러 물류 루트' 개통」(2016. 1. 27), 연합뉴스.

10) 「大连港开通“辽满欧”商品车过境班列」(2016. 7. 31), 辽宁日报.

11) 「满洲里六成过境班列来自“辽满欧”」(2016. 9. 16), 辽宁日报.

12) 진푸신구는 동북지역 최초의 국가급 신구로 국가발개위에서 한국·일본·러시아·북한·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전략지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을 발표. 자료: 国家发展改革委(2014. 7. 12), 「关于印发大连金普新区总体方案的通知」.

다. 산시(陝西): 실크로드 경제권의 신(新)기점

- 산시는 중국 서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하며 광산자원이 풍부하고 중국 내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군수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꼽힘.
 - 산시는 서북지역의 관문으로서 지리적으로 중부 3개 성(省), 서부 5개 성(省)과 접하여 서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
 - 산시에 매장된 광산자원의 가치는 중국 내 가장 큰 비중(약 30%)을 차지하며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
 - 산시는 중국 제1의 군수산업기지로 성도인 시안시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관련 산업이 전국 최대 규모로 집적되어 있음.
- 산시성 정부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신(新)기점, 중국 내륙 개혁개방의 첨병'을 지역 포지셔닝으로 삼아, 중국 서북부지역의 교통·물류·상업, 산업협력, 문화관광, 과학기술혁신, 금융업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함.
 - 철도, 도로, 공항 등 육상 교통 및 항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안과 중앙아시아를 오가는 국제화물철도인 '창안호(長安號)' 운행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 2013년 개통된 창안호(長安號)는 시안에서 출발하여 신장의 아라산커우를 거쳐 러시아의 모스크바 및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도달하며 2015년 기준 주 2~3회 운행 중임.¹³⁾
 - 국책은행과 연합하여 지역 대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 및 지지를 받고자 함.
 - 산시성 대표 장비제조기업(陝汽, 陝鼓)의 실크로드 연선국가 진출과 식품가공기업(愛菊, 糧農)의 중앙아시아 내 농업기지 구축을 지원
 - 산시성 정부는 중국개발은행 산시분행(陝西分行)과 '일대일로' 중점 프로젝트와 지원기업 명단을 검토·선정하는 중에 있으며 이를 중앙정부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자 함.
 - 문화관광 관련 실크로드 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러시아 등과 협력하여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이 중 '중·러시아 실크로드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中俄絲綢之路高科技產業園)'는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2014년 10월 중·러 총리 정례회동 당시 산시성 정부와 러시아 측 대표가 관련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關於合作開發建設中俄絲綢之路高科技產業園的合作備忘錄)를 체결¹⁴⁾

표 6. 산시성의 '일대일로' 주요 추진정책

구분	세부내용
교통·물류·상업	△ 고속철, 공항,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시안~청두(成都), 시안~인촨(銀川) 구간 등 고속철 건설, 셴양(咸陽)국제공항 증설 등 △ 철도종합물류센터 건설 등 물류·통관센터 구축과 해외 전자상거래 및 수출입 확대

13) 일례로 산시성 식품기업 아이취량유그룹(愛菊糧油集團)이 중앙아시아에 투자·건설한 식품가공기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창안호로 수입하고 있음. 「哈铁快运合作三方协议」在西安国际港务区签署(2015. 6. 24), 陝西传媒网; 「陝西打造“一帶一路”五大中心」(2015. 8. 13), 上海証券报.

14) 러시아 측 파트너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중·러 투자펀드(Russia-China Investment Fund), 스킨코보 혁신센터(The Skolkovo Innovative Center)임. 「西咸新区携手俄罗斯“硅谷”共建中俄絲綢之路高科技產業園」(2014. 10. 20), 華商報.

표 6. 계속

구분	세부내용
산업협력	△ 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생산기지 건설: 장비제조업, 농업·식품가공업, 에너지·석유화학 관련 기업의 진출 지원 △ 지역 내 해외 산업협력단지 건설: 한·중 산업단지, 중·키르기스스탄 항공경제산업단지, 중·이탈리아 항공우주단지, 중·이스라엘 혁신시범단지 등
문화관광	△ 캄보디아 씨엠립, 카자흐스탄 알마티, 터키 이스탄불 등의 주요 관광지간에 국제선 개통 △ 지역 내 실크로드를 테마로 한 관광단지 조성
과학기술혁신	△ 중국 서부지역 과학기술 혁신단지, 중·러시아 실크로드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中俄丝绸之路高科技产业园), 시안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유라시아 혁신 설계단지 건설을 추진
금융	△ 금융업 집적단지 건설, 중외합자 및 외자 금융기업 유치 △ 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발전기금(500억 위안) 조성

자료: 陕西省人民政府(2016. 5. 26), 「陕西省“一带一路”建设2016行动计划」; 「陕西打造“一带一路”五大中心」(2015. 8. 13), 上海证券报.

■ 시안시 정부는 시정부 산하에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등 4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15년 시안시 정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관련 정부 조직(落实共建丝绸之路经济带战略工作领导小组, 西安市建设丝绸之路经济带工作办公室)과 연구기관(西安市丝绸之路经济带研究院)을 설립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고 11억 위안 규모의 실크로드 정부기금을 조성¹⁵⁾
- 시안시 정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관련 사업으로 4대 핵심사업(①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② 중·싱가포르 협력사업(中新合作项目) ③ 국제적 내륙항(国际内陆港)¹⁶⁾ 건설 ④ 유라시아경제 종합단지(欧亚经济综合园区)을 내세움. 다만 이 중 중·싱가포르 협력사업 지역이 충칭으로 선정되어 계획에 차질을 빚음.¹⁷⁾
 - 2015년 3월 발표한 정부 문건(西安建设丝绸之路经济带(新起点)战略规划)에 중·싱가포르 협력사업을 포함시켰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력후보지로서 시안, 청두, 충칭이 경합한 끝에 2015년 11월 충칭이 최종적으로 선정¹⁸⁾
 - 산시성 정부가 과거 11차 5개년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국제적 내륙항 건설은 현재 중외자 합자기업(中铁联合国际集装箱有限公司) 및 해외투자기업이 참여하여 진행 중임.
 - 또한 시안시 정부는 '유라시아 경제포럼(欧亚经济论坛)'의 정기 개최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유라시아 경제협력 중심지인 '유라시아경제 종합단지(欧亚经济综合园区)'를 건설하고자 함.

■ 산시성 내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 중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과 지방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투자가 두드러짐.

- 최근 2년간 산시성의 교통인프라 투자는 900억여 위안에 달하고 고속도로 총 길이는 5,000km, 신설 철도 길이는 600km에 달함.¹⁹⁾
- 2015년 6월 시안시 국유기업(西安国际陆港投资发展集团) 및 카자흐스탄 국영기업(哈铁快运股份公司), 시안육항대륙교국제물류회사(西安陆港大陆桥国际物流有限公司)는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중·카자흐스탄(시안)

15) 程默, 程丽辉(2015), 「西安建设丝绸之路经济带新起点发展报告」, 『丝绸之路经济带发展报告(2015~2016)』.

16) 내륙항(dry port or inland port)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 4. 28), UN에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비준서 제출

17) 西安市会展业发展办公室, http://www.xahzw.gov.cn/ptl/def/def/index_1272_4383_ci_trid_1826687.html(검색일: 2016. 11. 28).

18) 「第三个中新合作项目落户重庆 西部航空物流业受益」(2015. 11. 10), 21世纪经济报道.

19) 「娄勤俭: 陕西接轨“一带一路”大战略」(2015. 9. 18), 人民日报海外版.

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함.²⁰⁾

- 산시석탄화공그룹(陝西煤業化工集團), 중철이십국그룹(中鐵二十局集團) 등 산시성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업추진상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임.²¹⁾
- o 산시성 정부는 20개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진행 중이나 국가발개위의 지침에 따라 조정 예정임. 일례로 산시석탄화공그룹은 키르기스스탄의 석유화학공단 사업을 추진 중임(총투자 4.5억 달러).

■ 지역 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산시성 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및 인프라 건설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²²⁾

- 2015년 10월 기준 중국개발은행 산시분행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투자한 프로젝트의 건수는 400건,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함(전체 해외사업의 1/3, 누계기준).
- o 산시석탄화공그룹(陝西煤業化工集團)은 '일대일로' 해외투자 목적으로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2.5억 달러, 중국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를 대출 받음(총 27억 위안).
- 2015년 10월까지 공상은행 산시분행의 기업대출은 1,595억 위안에 달하며, 산시성 바오지(寶鷄)시-한중(漢中)시 고속도로, 시안-청두 고속철(西成鐵路) 등 '일대일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금이 큰 비중을 차지함.
- o 중철이십국그룹(中鐵二十局集團)은 2013~15년 공상은행 산시분행과 약 40억 위안 규모의 융자협의를 체결
- 산시성 소재 국책 및 민간은행에서 교통인프라 건설, 에너지자원 투자 및 산업 육성 관련 각종 투자기금을 설립·운영
- o 중국개발은행 산시분행은 '산시 실크로드 교통발전기금(陝西絲路交通發展基金)', '산시 석탄 실크로드 신에너지 투자기금(陝煤絲路新能源投資基金)'을 설립, 공상은행은 '산시 실크로드 신기점 산업육성 기금(陝西絲路新起點產業引導基金)', '산시성 중소기업 성장 및 산업육성 기금(陝西省中小企業成長產業引導基金)'을 설립함.
- o 또한 민생(民生)은행은 산시성 기초인프라 투자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총 500억 위안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고 흥업(興業)은행은 산시황금그룹(陝西黃金集團) 등과 함께 '일대일로' 금광자원투자 및 산업발전을 위한 1,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기금을 설립

3.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지역

가. 푸젠(福建):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

■ 중국 동해안과 남해안의 교차점에 위치한 푸젠성은 중국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으로 어업 및 수산가공업 발전이 두드러진 지역임.²³⁾

- 푸젠은 중국 내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여 대(對)대만 경제협력 시범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을 중심

20) 「『哈铁快运合作三方协议』在西安国际港务区签署」(2015. 6. 24), 陝西傳媒網.

21) 「省政府与国家发改委建立推进国际产能合作委省协同机制」(2016. 3. 10), 陝西省發改委.

22) 「信贷“一带一路”银行谋万亿“产能输出”市场」(2015. 11. 23), 中國經營報.

23) 趙可金(2016a), 「福建要打造带动腹地发展的海上合作战略支点」, 鳳凰國際智庫.

으로 화교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지역임.

- 푸젠 출신의 화교는 1,580여 명으로 전체 푸젠성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 푸젠성 대외경제 협력에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푸젠은 주변 해안의 수심이 깊어 심해항 건설에 뛰어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푸젠의 장어·전복 등 수산물 가공품 수출이 전국 1위로 해외 양식업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임.

■ 푸젠성은 중국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일대일로' 관련 교통물류 허브, 경제무역 협력플랫폼, 제도개혁 시범지역으로서 지역적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임.

- [교통물류 허브] 항구 및 공항 기능 강화하고 철도 및 간선도로를 확충하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항구건설, 통관, 물류정보화 등 방면 협력을 추진
 - 향후 주요 취급 물품에 따라 6곳의 핵심 항만을 조성하고 샤먼시 '동남(东南) 국제해운센터' 건설과 샤먼(廈門)·푸저우(福州)·취안저우(泉州) 등지의 항공 인프라 증설을 추진하며 장강 및 주장삼각주를 비롯한 중국 국내 교통 인프라 연계에 힘씀.
 - 2016년 9월 푸젠성 정부 발표문건에 따르면 13.5 규획기간 교통인프라 관련 총 5,866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각각 투자규모에 따라 고속도로(1,753억 위안), 도시철도(1,453억 위안), 철도(1,081억 위안), 공항(706억 위안), 항만(260억 위안) 순임.²⁴⁾
- [경제무역 협력플랫폼] 산업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무역·투자 협력 확대를 꾀하고 주요 협력지역은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인도양 연해 지역에 위치한 국가 및 유럽을 아우름.
 - 기계·방직·신발 등 경쟁우위업종의 해외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고도화에 힘쓰며 농업·에너지·관광·관광업 관련 협력을 강화
 - 석유화학·IT(집적회로, 디스플레이) 등 3대 지주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해외 협력을 확대
 - 동남·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수산업 기지를 건설하여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
- [제도개혁 시범지역]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계기로 무역·투자·금융 등 관련 제도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대대만 시범협력사업을 추진
 - 보세구 등 해관 특수 관리구역의 통합 및 효율적 관리에 힘쓰고 대만 자본의 푸젠 항만 인프라 투자 및 해운센터 공동건설을 지원

표 7. 푸젠성의 '일대일로' 관련 주요 추진정책

구분	세부 내용
교통물류 허브	△ 인프라 투자: 13.5 규획기간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구 인프라 관련 5,866억 위안 투자 △ 해상운송: 푸저우의 뤼위안만(羅源灣), 취안저우·푸톈(莆田)의 메이저우만(湄洲灣) 등 핵심 6개 항구를 중심으로 해상운송의 집약화 및 규모화 달성, 운항노선 증설, 해외 항만기업과 협력 강화 △ 항공 및 육상운송: 샤먼공항을 중심으로 경유공항 기능 강화, 철도(吉永泉鐵路*, 福廈高鐵**)·고속도로를 확충하여 주변 지역과의 육상운송, 지역 내 육상 및 해상 운수 연계 강화 △ 아세안·대만·홍콩 등지와의 항만인프라·물류 정보공유 및 운영관리 협력

24) 福建省人民政府(2016. 9. 1), 「关于推进综合交通“五个工程”建设实施意见的通知」.

표 7. 계속

구분	세부 내용
경제무역 협력플랫폼	△ 기계·방직·신발 등 경쟁우위업종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 지원과 기술표준 보급 확대 △ 농업·에너지자원·관광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석유화학·IT·기계장비 제조 발전 도모 △ 중·아세안 해양협력센터 및 수산물거래소 설립, 어업기지 개발협력
제도개혁 시범사업	△ 자유무역시범구 건설(무역, 투자, 금융, 정부 감독관리 등 영역의 개혁) △ 대대만 협력강화: 항만 인프라 및 해운센터 공동 건설, 해상운송 협력, 해외 공동 진출

주: * 지용취안 철도(吉永泉铁路)는 장시성 지안(吉安)시와 푸젠성 용안(永安)시, 취안저우(泉州)시를 연결하는 철도로 기존의 내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서부를 기점으로 하여 화중(华中)지역을 관통하는 (석탄운반전용)철도를 푸젠성까지 연장한 노선이며, 푸젠성 내 철도 길이는 200여 km에 달함.
 ** 푸저우~샤먼 고속철(福厦高铁)은 저장(浙江)성 윈저우(温州)~푸저우, 샤먼~광둥(广东)성 선전(深圳)을 잇는 구간으로, 동남부 연해를 따라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를 연결함.
 자료: 福建省发改委, 福建省外办, 福建省商务厅(2015. 11. 17), 「福建省21世纪海上丝绸之路核心区建设方案」; 福建省人民政府(2016. 9. 1), 「关于推进综合交通“五个工程”建设实施意见的通知」.

■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해상 실크로드 핵심 지역인 취안저우(泉州)시는 2016년 1월 「해상 실크로드 건설 관련 행동방안(泉州市建设21世纪海上丝绸之路先行区行动方案)」을 발표, 중장기 정책목표 및 10대 행동계획을 명시

- 2020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무역액 250억 달러, FDI 누계 35억 달러를 목표로 하여 향후 중국 내 해상 실크로드 관련 도시 중 경제발전 수준을 선두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
- 주요 정책 방향은 해상 실크로드 건설 관련 화교 참여 확대 및 대만·홍콩·마카오와의 공동 건설, 민영기업의 글로벌화, 스마트제조를 통한 산업고도화, 중앙에서 승인한 금융개혁 시범사업²⁵⁾ 추진 등임.
- 10대 행동계획으로 취안저우항의 인프라 확충, 해상 실크로드 주변 국가와의 무역·투자 증진, 해외 화교와의 협력강화, 중동 경제회랑 개척, 자유무역시범구의 정책과 경험 도입 등을 제시함.
 - 취안저우는 당대 말엽부터 송·원·명대에 이르기까지 아랍상인의 주요 무역항이었으며 최근 대(對)중동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중동지역이 취안저우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었음.²⁶⁾
- 취안저우는 '일대일로' 관련 180개 프로젝트를 추진, 이 중 50여 개가 기초인프라 건설사업임. 특히 취안저우항의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며 이 중 일부는 중동산 원유 수입 확대와 연관됨.²⁷⁾

■ 푸젠성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국책은행 및 중앙정부 기금을 동원하여 사업자금을 확보

- 2015년 푸젠 내 총 27개(선석·船席 기준)의 중·해외 합작 항만 프로젝트가 계획 또는 건설 단계에 있으며 투자규모는 약 130억 위안에 달함.²⁸⁾
 - 전체 27개 협력사업 중 각각 홍콩기업이 10개, 대만기업이 7개, 인도네시아기업이 6개, 싱가포르기업이 4개 진행하여 홍콩기업의 참여 비중이 가장 큼.
 - 일례로 인도네시아 화교재벌 그룹 SALIM은 푸저우항 선석 및 식품물류단지 건설을 추진 중임.²⁹⁾

25) 자세한 내용은 노수연, 김홍원(2013), 「중국 금융개혁 시범추진 현황과 평가: 저장, 광둥, 푸젠성」, 중국 성(省)별 동향브리핑 참고.
 26) 「海丝”牵线助推泉州品牌国际化」(2015. 4. 29), 泉州晚报.
 27) 「新“海丝”路上的“先行区”——专访福建泉州市市长康涛」(2016. 1. 21), 瞭望东方周刊.
 28) 푸젠 내 해외 합작으로 기운영 중인 선석은 총 41개로, 참여한 해외기업의 지역분포는 각각 홍콩(22개), 대만(8개), 싱가포르(7개), 인도네시아(4개) 순임. 新华福建. <http://www.fj.xinhuanet.com/gdft/50/index.htm>(검색일: 2016. 9. 18).

- 2015년 형성창(恒盛昌) 등 6개 기업이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 6억 달러규모의 양식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푸저우시 정부에서 관련 프로젝트 투자기업에 대해 1,260만 위안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³⁰⁾
- o 2015년 푸젠성 정부 차원에서 푸젠성 정부인증 어업단지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 지원계획을 밝힘.³¹⁾
- 푸저우시와 샤먼시 정부는 2014년 각각 외교부 승인 사업과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국가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o 푸저우시 정부는 중·아세안 해상협력기금(中国-东盟海上合作基金)의 지원을 받아 중·아세안 수산물 거래소 및 산업단지(中国-东盟海产品交易所, 东盟渔业产业园)를 추진 중이며, 2014년에는 중·아세안 수산물거래소를 개소, 2015년 말 기준 누적 거래건수와 거래량은 각각 3.7억 건, 2,410억 위안에 이룸.³²⁾
- o 샤먼시 상무국에 따르면 추진 사업 중 해양협력을 가장 우선시 하여 2020년까지 2~3개의 협력시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지역 어업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중·아세안 해양협력센터'를 건설할 계획³³⁾
- 푸젠성 정부는 국가발개위와의 협의하에 인도네시아, 케냐, 파푸아뉴기니 등지에 푸야오유리그룹(福耀玻璃集团)을 포함한 5개 기업(福建鼎瑞公司, 福建吴钢集团, 武夷实业股份公司, 紫金矿业集团)의 21개 해외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³⁴⁾
- 푸젠 내 시정부는 산업기금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독려하며, 개별 지방에 소재한 국책은행 및 중앙정부 기금을 활용하여 지방 정책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를 진행
- o 취안저우시 정부는 기업투자 지원을 위한 2.7억 위안의 기금 마련하였고,³⁵⁾ 푸저우시 정부와 중국개발은행 푸젠분행, '중·아프리카 발전기금(中非发展基金)'이 연합으로 100억 위안 규모의 해상 실크로드 기금을 조성³⁶⁾
- o 중국개발은행 샤먼분행은 2016년 5월 기준 인도네시아에 기초인프라 관련 총 68억여 위안의 대출금을 제공³⁷⁾

나. 광시(广西): 중국 서남부 지역발전의 신(新) 전략거점

- 광시는 중국 서부지역 중 유일한 연해지역으로 서부지역에서 바다로 진출하는 최단거리 경로이자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핵심 지역임.
- 광시는 중국 서부지역 중 심해항을 통해 직접 태평양으로 연결되며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과 가장 가까운 중·아세안 길목에 해당

29) 福州市投资促进局, http://www.fuzhou.gov.cn/zfxxgk/bmxsq/bmxx/bmxx31_1/gkml/201512/t20151230_1017245.htm(검색일: 2016. 9. 18).

30) 福州市海洋与渔业局(2015), 「2015年福州市远洋渔业专项资金补助项目分配方案」.

31) 「福建再出海一带一路: 如何不一厢情愿」(2015. 4. 5), 经济观察报.

32) 중·아세안 수산물 거래소는 해외화교협회에서 푸젠성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2014년 중앙정부의 설립 비준을 받음. 거래소 본부를 중국 푸저우에 건설하고 향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지로 거래소 지점을 확대할 계획임. 자료: 康霖, 罗亮(2014), 「中国-东盟海上合作基金的发展及前景」, 《国际问题研究》, 2014年 第5期; 「福建深耕海洋产业 细作海上粮仓」(2016. 7. 21), 经济日报; 「193名港澳台侨人士莅会 关注海丝、自贸区建设」(2015. 1. 30), 福建侨报; 「借力海丝, 福建经贸打好“东盟牌”」(2016. 4. 17), 福建日报.

33) 「중·아세안 해양협력센터」는 2014년 중·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리커창 총리가 제안한 사업으로 중국 국가해양국, 푸젠성 정부, 샤먼시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함. 자료: 「一带一路项目清单浮出 国家层面项目超过900个」(2015. 5. 29), 上海证券报; 「中国-东盟海洋合作中心领导小组成立」(2015. 8. 21), 中国海洋报.

34) 「国家发改委已与18省份建立推进国际产能合作省协同机制」(2016. 3. 15), 中国改革报.

35) 「一带一路项目清单浮出 国家层面项目超过900个」(2015. 5. 29), 上海证券报.

36) 胡祖铨(2016. 3. 25), 「一带一路」的基本政策, 国家信息中心.

37) 「厦门境外投资服务平台将于下周正式上线打造“走出去”窗口城市」(2016. 8. 19), 厦门日报.

- 광시는 중국 상무부에서 주관하는 중·아세안 엑스포(中国-东盟博览会) 개최지로써 중·아세안 경제협력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
 - 2003년 중·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중국측에서 중·아세안 엑스포 개최를 제시하였고, 이후 매년 광시 난닝(南宁)시에서 정기 개최되는 양국간의 경제무역 관련 최대 엑스포임.³⁸⁾
 - 2013년 10회 엑스포 당시 중국과 아세안 교통부 장관은 '교통 인프라 건설협력에 대한 연합성명(中国-东盟互联互通交通部长特别会议联合声明)'을 통과시켰고, 2014년 중·아세안 경제협력 10주년을 맞아 협의체 구성을 '10+1'에서 '10+N'으로 확대하여 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부응하는 데 합의³⁹⁾
- 광시 정부는 기초인프라의 연결성 강화와 산업협력을 골자로 하여 중국 서남부지역의 신(新)전략거점 발전계획을 수립
 - 난닝시는 철도를 중심으로 중국 국내 주변지역과의 교통인프라 확충하고 북부만 국제해운센터(北部湾区域国际航运中心) 건설을 가속화하여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에 일조함.
 - 북부만은 쿤밍(昆明), 청두(成都), 충칭(重庆), 구이양(贵阳)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국 내륙지역의 대아세안 해상운송화물을 적극 확보할 계획⁴⁰⁾
 - 북부만은 해외 전략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공동으로 해외 항구 건설을 통해 업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토지 및 세수 방면의 혜택 제공하여 임해공업을 적극 발전시킬 계획.
 - 광시의 지리적 우위요소를 활용하여 아세안을 포괄하는 산업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중·중남반도 경제회랑(中国-中南半岛国际经济走廊), 브루나이·광시경제회랑(文莱-广西经济走廊) 건설과 중·아세안 정보망 건설 및 IT 협력사업(中国-东盟信息港)을 추진
 - 기존에 광시 정부는 각각 말레이시아(2013년), 인도네시아(2007년), 베트남(2013년)과 경제협력단지 건설을 논의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 중 특히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⁴¹⁾
 -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중남 반도 경제회랑⁴²⁾과 광시 정부 주도의 브루나이·광시경제회랑 관련 국가간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협력
 - 통신네트워크, 위성항법시스템, 인터넷 보안,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국경간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관련 중·아세안 정보망 건설 및 IT협력사업(中国-东盟信息港)을 추진⁴³⁾

38) 赵可金(2016b), 「广西可将“一带”与“一路”有机衔接」, 凤凰国际智库.

39) 「中国-东盟交通部长特别会议联合声明发布」(2013. 9. 2), 中国新闻网.

40) 북부만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해운 통로이지만 광시 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화물이 주장삼각주 항구로 분산됨. 자료: 「北部湾港: “一带一路”龙头港口或引境外战投」(2015. 4. 27), 中国证券网.

41) 광시자치구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음. 광시는 중국 전체 변경 무역 중에서 가장 큰 규모(2014년 광시 변경무역액 147억 달러)를 차지하며, 이는 베트남과의 무역에 의한 것임. 제2의 중점협력 국가는 양자간 상호 단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이며, 동 사업 추진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음. 자료: [인터뷰] 평칭화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 당서기(2015. 4. 14), 레이더A.

42) 중·중남 반도 경제회랑은 각각 광시와 윈난을 기점으로 싱가포르를 종점으로 하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를 잇는 경제회랑.

43) 이는 2014년 제1회 中国-东盟网络空间论坛 당시 국가 인터넷보안 및 정보화 유관기관(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과 광시자치구 정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2016년 4월 국무원에서 건설방안(中国-东盟信息港建设方案)을 비준하였고 13.5 규획의 중점사업에 포함시킴. 중국 통신 국유기업 中国联通을 중심으로 中国-东盟信息港股份有限公司를 설립, 中国联通 광시 지사 대표를 회사 대표로 추대함. 자료: 「中国-东盟信息港股份有限公司成立 构筑“信息丝绸之路”」(2016. 6. 19), 人民网-广西频道.

표 8. 광시자치구의 '일대일로' 관련 주요 추진정책

구분	세부내용
교통·물류	△ 13.5 규획기간 교통인프라 관련 6,000억여 위안 투자(각각 도로 2,900억 위안, 철도 1,700억 위안, 수운 550억 위안, 항공 120억 위안) △ 교통인프라(국내): 난닝(南宁)시와 북부만(北部湾)을 중심으로 종합교통허브 및 국제해운센터 건설, 중국 서남북을 연결하는 육상통로(베이하이~난닝~란저우) 및 광시 서장(西江)과 광둥성 주장의 연결 운하 건설 △ 교통인프라(해외): 아세안 육상통로(난닝~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 건설 △ 물류: 농산물 물류센터구축(南菜北运产地集配中心), 북부만 수산물 운송회랑(北部湾水产品空中运输走廊) 건설 난닝종합보세물류단지 등 신규 해관특수 관리구역 신청, 주변지역과 통관 일체화 사업 추진,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
산업협력	△ 중·중남 반도 경제회랑(中国—中南半岛国际经济走廊), 브루나이·광시 경제회랑(文莱—广西经济走廊) 건설 △ 중·아세안 정보망 건설 및 IT 협력사업(中国—东盟信息港) 추진 △ 중·말레이시아 산업단지(中马两国双园), 중·인도네시아 경협단지(中印尼经贸合作区), 중·베트남 국경간 경협단지(中越跨境经济合作区) 추진 가속화 △ 에너지·농업 관련 협력 강화(기술표준 연구 및 현지화 사업, 생산기지 건설 등)

자료: 广西壮族自治区发展和改革委员会(2016. 6. 21), 「广西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思路与行动」; 「广西“一带一路”实施方案出炉提出八大合作重点」(2016. 2. 2), 广西日报; 「十三五广西重大交通项目总投资超万亿」(2015. 8. 20), 广西新闻网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광시는 항만해운 및 경제회랑 관련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며, 특히 항만건설 관련하여 광시자치구 국유기업과 싱가포르 기업이 JV를 설립하여 중국 국내의 투자사업을 진행할 계획

- 2016년 5월 중국과 아세안 항만당국 회의 당시 중·아세안 해운물류정보센터(中国—东盟港口物流信息中心), 중·아세안 신항로개통 프로젝트(中国—东盟航线及航线服务项目), 중·아세안 수상훈련기지 등 3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⁴⁴⁾
 - 이 중 중·아세안 해운물류정보센터 건설사업은 글로벌 통신장비회사로 성장한 중국기업 화웨이가 주도하며,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교환센터 설립을 통해 역내 해운물류 자원의 통합과 정보교류체계를 수립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 지방 국유기업인 북부만국제항만그룹(广西北部湾国际港务集团)은 북부만 국제해운센터(北部湾区域国际航运中心)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항만공사(PSA) 및 해운회사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PIL)과 합자회사(각각 北部湾国际集装箱码头公司, 北部湾国际码头管理公司)를 설립하여 친저우항의 컨테이너선석 운영 및 중국 국내의 항만 관련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⁴⁵⁾
 - 현재 북부만항과 아세안 각국 항구도시들간에 15개의 컨테이너 직항 노선이 개통되어 있으며, 최근 신규로 싱가포르 해운사 PIL에서 북부만항~베트남~싱가포르 항로를 개통함.⁴⁶⁾
- 2014년 9월 광시자치구 정부는 브루나이·광시 경제회랑과 관련하여 브루나이 정부부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⁴⁷⁾
 - 양자 협력사업으로 식품가공제조기, 연구개발센터 및 관광지 등 복합단지 개발사업인 ‘중·브루나이 농업단지(中国—文莱农业产业园, 총투자 70억 달러)’와 ‘중·브루나이 중의약 헬스산업협력(中国(玉林)文莱中医药健康产业合作项目)’이 포함됨.

44) 「中国—东盟港口合作再添新成果 提速“海上桥梁”合作」(2016. 5. 27), 中国新闻网
 45) 「港口城市合作推动中国—东盟直航航线开通」(2016. 5. 24), 经济参考报.
 46) 「中国—东盟航线及航线服务项目启用 新航线开通」(2016. 5. 28), 广西新闻网.
 47) 「广西南宁规划建设中国—文莱农业产业园」(2015. 3. 30), 中国新闻网; 「文莱—广西经济走廊成为“一带一路”产业合作新平台」(2016. 1. 26), 中国新闻网.

4. 유망전략지역

가. 장쑤(江苏): 신유라시아대륙교와 황해를 잇는 물류기지 구축

- 장쑤성은 대외개방도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창장(长江)삼각주지역⁴⁸⁾에 속한 지역으로 전자제품,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중국 중서부 내륙 물자의 해외 수출 시 이용되는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련윈강항(连云港)이 소재
 - 장쑤성의 2015년 GRDP, 무역액, 외국인직접투자는 각각 중국 전체의 10.4%, 13.8%, 10.5%로 전국 2위
 - 집적회로,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설비 제조업이 발전해 사프, LG 디스플레이, 삼성, 히타치 등의 글로벌 전자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석유화학·화학섬유·화학비료 제조업도 발전
 - 장쑤성 북편에 위치한 련윈강항은 연간 물동량 2억 톤에 달하는 항구로, 중국 내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롱하이철도(隴海线) 란저우(兰州)와 련윈강을 잇는 철도와 연결됨.
- 장쑤성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외개방 기능을 강화하며 장쑤성 기업의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신유라시아대륙교 경제회랑 건설에 일조할 계획임.
 - 장쑤성은 중앙에서 제시한 거점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진핑 주석이 장쑤성을 '일대일로 육상·해상통로 교차지'라 일컬으며 대외개방 확대를 지시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됨.⁴⁹⁾
 - 련윈강시는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중 하나인 '신유라시아대륙교(련윈강시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총 길이 10,900km의 국제 철도)'의 동편 기점임.
 - 장쑤성은 신유라시아대륙교의 운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국제화물철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선국가와 협력해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한편 해상·육상·국제항공 운송의 연계 강화
 - 련윈강~유럽, 쑤저우(苏州)~유럽, 난징(南京)~중앙아시아, 쉬저우(徐州)~중앙아시아 간 국제화물열차 운행 확대
 - 련윈강시에 카자흐스탄과 협력해 '중·카자흐스탄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상하이협력기구 관련 국가와 한국·일본·동남아 간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해 '상하이협력기구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국제화물 환적, 국제무역, 보세통관 등 물류서비스를 강화
 -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3~4개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일대일로'투자기금을 마련하는 등 장쑤성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노력⁵⁰⁾
 - 캄보디아 시아누크항 인근에 의류, 전자제품 등 업체를 중심으로 경제무역합작구를 조성하고, 인도네시아에 농공무역경제합작구(双马农工贸经济合作区)를 세웠으며, 향후 2개의 해외 산업단지를 추가 건설할 계획
 - 2015년 6월 장쑤성 정부는 30억 위안 규모의 '일대일로' 투자기금을 마련하였고 장쑤성 기업이 해외투자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연선국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사용될 계획(2020년 기금규모 300억 위안으로 확대)

48) 창장삼각주지역은 상하이(上海)시, 장쑤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되며, 1992년 푸둥(浦东)신구의 개발과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권역 중 가장 빠른 성장을 유지해 옴. 창장삼각주지역의 면적은 21만 km²로 중국 전체 면적의 약 2%에 불과하나 2015년 중국 GDP의 20.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영향력이 큼. KIEP(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창장삼각주지역」.

49) 「“一帶一路”交汇点落定江苏：出海口连云港最受宠」(2015. 1. 30), 凤凰网.

50) 노수연, 이한나(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창장삼각주지역」.

표 9. 장쑤성의 '일대일로' 관련 주요 정책

구분	주요 정책
교통·인프라 연계 강화	△ 신유라시아대륙교 경제회랑 지지 기능 강화: 중·카자흐스탄 물류기지, 상하이협력기구 물류단지 건설 강화, 카자흐스탄 호르고스·이스탄 게이트 경제특구 건설 협력, 에너지·통신·물류 인프라의 통합적 구축 △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간 해상·육상·국제항공운수 연계를 강화해 국제물류기지 건설 △ 뤼윈강~유럽, 쑤저우~유럽철도, 난징~중앙아시아, 쉬저우~중앙아시아 간 국제화물열차 운행 확대
경제협력 강화	△ 연선국가와 농업, 해양경제, 금융보험 등 분야 협력, 석탄·석유·가스·금속 등 광산자원 개발협력 강화 △ 역외 건설프로젝트 수주 확대 △ 연선국가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양자 경제무역협력플랫폼 건설
인문교류 협력 확대	△ 연선국가와 교육, 문화, 보건, 체육, 관광, 적십자회 등 분야 교류협력 강화 △ '일대일로' 장학금을 조성해 장쑤성 유학생 확대 △ 난징, 뤼윈강, 쑤저우(苏州), 양저우(扬州) 등지의 해상 실크로드 관련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도 록 노력, 뤼윈강 국제물류박람회 개최

주: 장쑤성의 '일대일로' 전략 실시방안(江苏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实施方案)이 공표되지 않아, 장쑤성 13.5 규획 등에서 나타나는 '일대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자료: 江苏省人民政府(2016. 3. 31), 『江苏十三五规划』.

■ 뤼윈강은 장쑤성의 '일대일로' 핵심지역으로서, 물류기지 건설, 운송기능 향상, 연선국가와의 교류 확대에 노력⁵¹⁾

- 뤼윈강은 중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을 제시한 후 처음으로 성사된 중외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중·카자흐스탄 물류기지' 및 '상하이협력기구 물류단지' 건설지역으로서 장쑤성 물류기지사업의 핵심지역임.
- o 2013년 9월 중·카자흐스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뤼윈강시와 카자흐스탄 국유철도주식회사가 MOU를 맺고 물류기지를 건설하는 데 합의
- o 뤼윈강을 거쳐 신유라시아대륙교로 운송되는 초국경 화물 중 80%가 카자흐스탄으로 향하고, 카자흐스탄의 곡물, 철합금 등 화물이 뤼윈강을 거쳐 한국·일본·동남아 지역으로 운송되기에, 양측 물류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⁵²⁾
- o 2014년 컨테이너 집적장, 분해조립 창고, 집적장 전용철도 등을 건설하는 1기 공정이 완공되었으며, 2015년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곡물 보관창고 등을 건설하는 2기 공정이 시작됨.
- 2015년부터 '실크로드 국제물류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물류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화물 창고 건설,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잇는 국제화물 중계기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 o 2015년 2월부터 창강삼각주지역과 주강삼각주지역의 의료설비, 가전제품, 판재 등을 운송하는 뤼윈강~카자흐스탄 알마티 화물열차가 매주 5대 운행 중임.⁵³⁾

나. 후난(湖南): 장비제조·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중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후난성은 후베이(湖北)성과 함께 창장(長江) 중류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중부지역 대표 지역으로 장비제조업,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전

51) 中国社会科学院一带一路研究中心(2016), 『一带一路蓝皮书:“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2016)』: 「중국-카자흐스탄 합자건설 물류기지, 뤼윈강에 정착」(2014. 5. 29), 전북도민일보.

52) 「落实国家“一带一路”战略部署建设沿东陇海线经济带新闻发布会」(2015. 8. 20), 江苏省人民政府网; 「连云港物流合作基地写入中哈联合公报」(2015. 12. 16), 光明网.

53) 「“连新亚”班列运行1周年」(2015. 12. 16), 人民网.

- 중국 최대 중장비 생산기지 중 하나로, 중국의 굴삭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썬이(三一) 중공업, 중련중커(中联重科) 등의 건설장비 제조기업이 소재
- 중국 국영 방송국인 CCTV 다음으로 높은 시청률과 영향력을 가진 방송국인 후난위성TV(湖南卫视)가 소재해 있고, 방송, 출판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 중
- o 후난위성TV는 중국에서 대장금을 가장 먼저 방영해 한류를 이끈 방송국으로,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등의 한국 인기 방송프로그램 판권 구매, 방송인력 교류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활발

■ 후난성은 '일대일로' 관련 지역 중점 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교통·물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후난성은 건설경기 둔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중장비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돕고, 문화콘텐츠 분야 해외 진출에 특히 노력할 계획
- o 브라질과 벨라루스에 각각 썬이 중공업과 중련중커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스리랑카에는 후난건설공업그룹의 오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 중장비기업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 o 후난위성TV, 중난미디어(中南传媒) 등의 방송플랫폼 및 연선국가와의 문화체육, 방송, 공연 등 분야 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해 후난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함으로써,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 교역을 연평균 15% 이상 성장시킬 계획
- 또한 내륙의 교통·물류 거점지역 중 하나로서, '일대일로' 중점지역 및 연선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국 전체 실크로드 통로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후난성의 대외개방 통로를 확대
- o 후난성 내륙항과 연해지역 항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네이멍구·화중(華中) 지역 석탄 운수 철도 등 '일대일로' 관련 주요 육상 통로와의 연계 강화
- o 2014년 개통한 창사~독일 뒤스부르크 국제화물철도의 운영을 확대해, 후난성의 전자제품, 도자, 의류, 기계 부품, 철강 등 제품 수출을 확대
- 이 외에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선진기술·첨단장비의 수입을 확대하고, 연선국가와 협력해 후난성에 공동연구센터와 글로벌 기술이전센터를 건설하는 등 기술 도입에도 노력

표 10. 후난성의 '일대일로' 주요 정책

구분	주요 정책
장비생산 분야 해외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까지 대외투자 연평균 20% 성장, 대외투자액 30억 달러 돌파 △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공정기계, 철강, 자원개발 산업협력 확대 △ 서남아시아: 인프라, 공정기계, 농업, 에너지·환경 분야 협력 확대 △ 동남아시아: 철강, 방직, 전자제, 궤도교통 분야 산업협력 확대 △ 오세아니아·남미: 공정기계, 궤도교통, 자원개발, 농업 협력 확대 △ 중동 및 아프리카: 농업, 인프라, 공정기계, 광업 분야 협력 확대 △ EU: 공정기계, 환경보호기계, 자동차, 농업 분야 협력 확대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사 황화(黃花)국제공항에 종합보세구 조성 및 항공물류 육성, 상장신구를 개방 핵심구역으로 조성 △ 해외진출 기업을 기반으로 해외 경제무역 협력단지 건설 △ 광시 난닝·신장 우루무치 등 중국 국내 '일대일로' 핵심도시에 후난·ASEAN, 후난·유라시아 협력사무소 설립
대외무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까지 대외무역 연평균 10% 성장,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대외무역 20% 이상 성장 △ 식품, 농산품, 전자제품, 공정기계, 문화관광제품 등 수출과 자원, 선진기술·첨단장비 수입 확대

표 10. 계속

구분	주요 정책
외자투자 기술도입 제고	△ 국제 선진기술, 경영모델 도입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확대 △ 네거티브리스트를 도입하고,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시행 정책을 도입하는 등 외자투자 환경 개선 △ 연선국가와 협력해 후난성에 공동연구센터, 글로벌 기술이전센터를 건설하는 등 기술협력 확대
인프라 연계 강화	△ 2017년까지 '일대일로' 중점지역 및 항구와 연계 강화, 종합교통운수시스템 구축 △ 육상: 내이명구~화중지역 석탄운수 철도, 중·중앙아시아 경제회랑, 중·ASEAN 경제회랑 및 북부만지역, 동남부 연해지역 등과의 연계 강화, 창사~독일 뒤스부르크 국제화물철도 운행 확대 △ 수상: 지역 내 내륙항과 연해지역 항구간 연계 강화, 위에양(岳阳)~ASEAN 항로 운수능력 제고, 주요 국과의 직항 항로 개통
인문교류 확대	△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 교역 연평균 15% 이상 성장, 교역액 13억 달러 돌파 △ 연선국가로부터의 유학생 수 연평균 10% 이상 확대, 연선국가 정부와 정기 교류 프로그램 마련 및 우호도시 체결 △ 연선국가와 문화체육, 방송, 출판, 공연 등 분야 교류 협력 확대, 해외에 문화 중개기구 및 홍보채널을 구축해 후난성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자료: 湖南省人民政府(2015. 8. 14), 「湖南省对接"一带一路"战略行动方案(2015-2017年)」.

■ 창사시는 별도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후난성의 정치·경제·교통·문화 중심지로서 연선국가와의 산업단지 구축 협력, 교통·물류 연계 강화와 같은 후난성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할 것으로 보임.⁵⁴⁾

-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문건에서 창사시는 쓰촨(四川)성의 청두(成都), 허난(河南)성의 정저우(鄭州), 안후이(安徽)성의 허페이(合肥) 등과 함께 '내륙 개방형 경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13.5 계획기간 UAE에 설립된 아지만(Ajman) 중국산업단지, 폴란드에 설립된 북유럽 후난 농업산업단지 등 해외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창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닝샹(宁乡)현에 중국-말레이시아 국제할랄식품산업단지 건설에 노력
- 후난성 최대 공항인 창사 국제공항과 EU, 홍콩, 싱가포르 등지와의 화물 항공편을 확대하고, 샤닝(霞凝)항을 중심으로 중부지역 최대 복합운송센터를 구축하며, 창사~독일 뒤스부르크 화물철도의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는 등 내륙지역의 국제화물 운송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 후난성은 2017년까지 '일대일로' 관련 약 3,6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인프라 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알제리 고속도로 건설, 탄자니아 항구 건설, 스리랑카 오수처리장 등 해외 인프라 건설 분야 투자액이 약 1,375억 위안으로 해외 투자의 70% 이상이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음.
- 후난성 내 투자 중 시안과 창사 간 983km 길이의 쾌속철도 건설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전체의 93%를 차지

54) 长沙市人民政府(2016. 1. 21), 「长沙市“十三五”规划纲要」.

표 11. 후난성의 '일대일로' 관련 주요 프로젝트(2015~17년)

(단위: 억 위안, 건)

투자 유형		투자액		투자건수		대표 사례(추진기업, 투자액)
해외 투자	산업투자	1,900	139	62	14	인도네시아 농업·공정기계 생산 공장 건설 (중롄중커, 12.4억 위안)
	에너지·자원협력		279		20	오만 풍력발전소 건설(싼이 중공업, 3억 위안)
	인프라 건설		1,375		15	알제리 53km 고속도로 건설 (중국건설제5공정·中建五局, 105.4억 위안)
	산업협력단지		106		8	브라질의 기존 싼이산업단지 증설 (싼이 중공업, 22.3억 위안)
	과학기술·인문협력		1		5	파키스탄 교잡벼 R&D 생산 (룽핑 하이테크·隆平高科, 1억 위안)
역내 투자	대외개방 플랫폼	1,704	115	20	9	창사시 샤닝항 정박시설 확충(8억 위안)
	종합운송교통		1,589		11	시안-창사 983km 쾌속철도 건설 (국가철도총공사, 420억 위안)
계		3,604		82		-

자료: 노수연(2015), 「중국 일대일로 주요지역의 투자환경과 활용전략-5개 성(省)을 중심으로」를 수정.

다. 산둥(山东): 동아시아 교통물류·해양협력 허브

- 환발해 지역에 위치한 산둥성은 지경학적인 우위와 산업기반을 고루 갖추었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긴밀한 지역임.
 - 산둥성은 동쪽으로 발해만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인접하고 서쪽으로 허난성 등 중원(中原)지역, 남쪽으로 창장(长江)경제벨트, 북쪽으로 징진지(京津冀)경제권과 연결되는 등 지경학적으로 우수한 요건을 갖춘.
 - 또한 식품가공제조 생산·수출 전국 1위이며, 이외 가전제품제조, 건설 중장비제조 등이 발달함.
 - 약 4,800개의 한국기업이 산둥성에 진출해 있으며 한·중 FTA 협정에서 산둥성 웨이하이(威海)가 양자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 옌타이(烟台)가 한중산업단지 건설지로 지정되어 추진 중임.⁵⁵⁾
- 산둥성 정부는 교통·물류, 해양협력, 산업협력 중심으로 일대일로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산업협력 중 한국과의 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산둥성은 교통·물류 관련하여 해상 철도운송 인프라를 강화하고 서쪽으로는 신유라시아대륙교, 북쪽으로는 중·몽·러 회랑과의 연계에 힘쓸 계획
 - 산둥성은 최근 동아시아 해양협력 관련 국가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중앙정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13년 10월 리커창 총리가 ASEAN+3회의에서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东亚海洋合作平台)' 건설을 의의하였고, 같은 해 국무원은 국가해양국과 산둥성 정부가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공동 건설할 것을 결정

55) 인천과 웨이하이가 한·중 FTA 협정에서 지방경제협력시범지로 지정되었고 주요 육성산업으로는 IT, 바이오, 물류, 관광, 금융 등이 있으며 통관협력, 전자상거래, 기업간 상호투자 협력에도 주력하고 있음. 또한 옌타이 한중산업단지(烟台中韩产业园)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첨단제조, 물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함. IFEZ 홈페이지, <http://www.ifez.go.kr/frt/subMain1.do>(검색일: 2016. 9. 28); 「威海,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示范区」(2015. 2. 27), 威海网; 한중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www.ytckip.gov.cn/cn/index.asp>(검색일: 2016. 9. 28).

- 2015년 12월 국가해양국, 산둥성 정부, 칭다오(靑島)시 정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영도소조(领导小组)'가 창설되었고, 영도소조 회의에서 관련 건설계획(东亚海洋合作平台建设规划 2015-2020年)이 통과됨.
- 산둥성 정부는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중점국가별로 지도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우위산업, 자원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인프라 관련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
- 첨단장비제조, 자동차, IT, 화학공업 분야의 산둥성 기업과 선진국과의 R&D 센터 설립 장려하고 생산능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및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에너지자원 개발은 전력, 석유장비, 해양플랜트장비, 천연가스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며, 특히 천연고무·타이어·제지·정유·목재가공 등 자원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기지 설립을 지원할 예정
- 특히 웨이하이·인첸 한중지방경제협력시범구, 옌타이 한중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

표 12. 산둥성의 '일대일로' 주요 추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교통·물류	△ 한국~산둥~신장의 아라산커우~신유라시아대륙교를 연결하는 해상·철도운송 중계 허브 구축 △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헝가리를 전략지역으로 삼고 신유라시아대륙교 건설에 주력 △ 산둥성 웨이팡(濰坊)시~랴오닝성 잉커우(營口)시~중·몽·러 회랑을 잇는 교통인프라 구축
해양협력	△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칭다오 해양협력센터, 첨단 해양산업기지 건설 △ 해외 어업기지 건설 등 해양산업 관련 해외 진출 확대
산업협력	△ 첨단장비제조, 화물차 제조, IT, 화학공업 등 우위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및 해외기업 투자인수 △ 타이어, 제지, 목재가공 등 자원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해외 자원기지 건설 △ 전력·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기업과 건축자재 기업의 해외 인프라 건설 참여 확대 △ 한·중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조성(웨이하이)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수준 제고 △ 첨단장비 제조기지 및 황하삼각주 첨단농업기술 산업시범구, 국제석유장비 연구센터, 국제방직산업기지 등 건설

주: 「山东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이 공표된 것으로 보도되나 실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및 언론보도를 토대로 정리.
 자료: 「《山东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对外公布」(2016. 4. 29), 大众日报; 山东省人民政府(2016. 3. 4),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산둥성 정부는 인프라, 자원개발, 산업협력, 인문교류, 금융협력, 생태보호 등 7개 부문에 걸쳐, 4,500억 위안 규모의 210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전체 210개 프로젝트 중 해외 투자 프로젝트는 190개로 대다수 투자사업이 해외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인프라 및 산업 협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투자사업 중 인프라 및 산업협력 관련 프로젝트가 각각 2,861억 위안 1,214억 위안으로 전체 투자의 91%를 차지함.
-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산둥성 정부는 국가발개위의의 협의하에 루이과학기술그룹(如意科技集团), 난산알루미늄(南山铝业), 웨이차오창업그룹(魏桥创业集团), 옌타이완화(烟台万华) 등 산둥성 지역대표기업의 23개 산업협력 프로젝트(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지)를 추진할 계획⁵⁶⁾

56)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5. 12. 21), 「国家发改委与山东省政府建立推进国际产能合作委省协同机制」.

표 13. 산둥성 '일대일로' 프로젝트 분야별 투자 규모 및 지역

7대 프로젝트	건수(개)	총 투자액(억 위안)	대상 지역
인프라	75	2,861	파키스탄, 러시아, 캄보디아 등 28개국
산업협력	81	1,214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27개국
에너지 자원	15	97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
인문교류	5	213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몰디브 등 5개국
금융협력	5	91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 5개국
생태보호	4	18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등 4개국
기타	5	9.6	-

자료: 「山东参与建设“一带一路”总体构想」(2016. 7. 22), 大众日报.

5. 결론 및 시사점

■ 전국 각지에서 일대일로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력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

- 31개 성시(省市) 중 베이징(北京), 시장(西藏), 하이난(海南)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28개 지역에서 일대일로 관련 실시방안을 수립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리스트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 다만 일대일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일대일로 관련 문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추진 중임.
- 2014년 광시자치구 정부가 국가 인터넷 보안 및 정보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안한 중-아세안 IT 협력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었고 푸젠성은 해외화교협회의 제안으로 중-아세안 수산물 거래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의 정책사업 협력기관이 다양하고, 지방정부에서 제안하여 국가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음.
- 일대일로는 새로운 획기적인 기획이라기보다는 개혁개방 이후 진행된 중국 지역발전전략과 대외개방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⁵⁷⁾ 지방정부 입장에서 특히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긴요한 상황
- 후난성을 포함한 다수 지역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의 일부는 기존의 지역발전정책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음.
- 해외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국가발개위에서 13개의 중점 협력업종을 지정하고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추진
- 자본조달에 있어 지방정부 측은 지방재정뿐 아니라 국책은행, 국유은행, 국가자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 추진
- 산시성의 경우 기업의 해외진출과 사업자금 마련에 있어 중국개발은행과 국유은행의 자금을 조달받고 푸젠성은 국책은행의 중-아세안 해상협력기금, 중-아프리카 발전기금을 활용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자본 및 산업기반의 해외유출,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중국 국내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며,⁵⁸⁾ 일각에서는 지역별 정책이 유사하여 과도한 경쟁과 자원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

- 해외 인프라 및 산업기반 구축보다 중국 내 낙후된 지역에 직접 투자 및 재정지원을 통해 미흡한 인프라 수준, 기업투자

57) 이동률(2016), 「일대일로와 중국외교」,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58) 国家发展改革委国际合作中心(2016. 7. 7), 「关于国际产能合作若干问题的释疑」.

유치문제, 기업의 용자난, 빈곤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 기업과의 협력으로 오히려 상대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 제고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음.

- 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2011~15년 서부지역에 총 5조 위안을 투자하였고, 이후 빈곤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힘. 또한 기존 대외개방정책의 수혜지역이 연해지역이었다면 일대일로의 핵심은 서부 및 변방 지역이며, 이에 이들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교통인프라 연계 강화로 지리적 발전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
 - 중국의 서부대개발을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지만 연해와 내륙의 격차는 여전히 큼. 내륙은 지리적인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 중서부지역으로 자원이 흘러들어갈 수 있음.⁵⁹⁾
- 한편 지역간 경쟁의 일례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시작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충칭(重慶)시, 산시(陝西)성, 허난(河南)성의 사례를 들 수 있음.
- 또한 중국 내 수많은 경제협력교류 행사가 개최되면서 시안(西安)시 유라시아 경제포럼의 경우 여타 경제협력 포럼과 비교해 경제적 효과 및 영향력이 제한적임.⁶⁰⁾

■ 한국은 해외기업의 진출 사례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프라-물류 분야 등의 중국 내수시장 및 중국을 경유한 제3국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

- 중국 내 인프라 사업 진출에 있어 정부간 협력기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기업의 진출 사례로서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인프라 시장은 민간 기업이 직접 진출하기 힘든 시장으로, 최근 중국정부 측에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나 여전히 추진상황이 미진한 편임.
- 중국과 인프라 사업 관련 제3국 공동 진출 시 한국은 비교적 경쟁우위가 있는 동남아시아를 공략할 필요가 있음.⁶¹⁾
 -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중 중동과 아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점유율을 보여 일대(一帶)에서의 협력보다는 일로(一路)에서의 협력이 수월할 것임.
- 한국기업 측은 중국과 유럽,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 운송을 활용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한국의 삼성전자, 글로벌 물류회사 DHL 등의 복합운송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중국발 철도운송 확대와 더불어 2017년 1월에는 중국의 국제도로협회(IRU) 가입 승인이 예정되어 있어 TIR시스템을 활용한 트럭수송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⁶²⁾
 - 삼성전자는 랴오닝성 철도노선을 통해 러시아로의 화물운송 시간과 수출 비용을 단축시켰으며,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랴오닝성의 물류인프라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DHL은 대만에서 중국 샤먼(廈門)까지 해상수송하고 중국 청두(成都)에서 폴란드 우치까지는 철도수송을 이용한 후, 우치에서 다시 독일로 수송하는 복합운송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드타임 및 비용 절감⁶³⁾

59) 장원링(2016), 「일대일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60) 「丝路经济带抢眼现象背后:多省出现同质化竞争」(2015. 1. 4), 瞭望.

61) 이희욱(2016).

62) TIR시스템은 유엔협약을 바탕으로 한 국제세관운송시스템으로 가입국 간의 세관시스템 연계, 보안 확보 등으로 세관 밀봉 차량과 화물 컨테이너가 국경 검문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어 운송 편의성 향상과 비용절감 가능.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11. 15), 「중국 IRU가입으로 유라시아 대륙 복합운송 활발해질 전망」.

- 실크로드 경제벨트 연선국가의 시장규모, 인프라 등 제반여건이 아직 미흡하나 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중앙아시아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o 제과회사 오리온은 원료공급과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해 2015년 신장 베이툰(北屯)에 스낵 원료 가공 공장 운영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오리온 공장과 연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⁶⁴⁾
- 또한 한국과의 교류사업이 활발한 산둥성과 랴오닝, 신장의 의료 및 후난의 문화콘텐츠 등 전략지역과 분야를 적절히 고려하여 중국으로의 협력진출 및 주변국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인 웨이하이시, 한중혁신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칭다오, 한중산업단지가 설립된 옌타이 등 한중 거점 협력도시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 촉진을 비롯하여, 유럽행 국제 화물열차 노선과 연계한 한국제품의 유라시아 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타진해볼 만함.
 - 랴오닝성은 바이오의약,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정밀기계, 의료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하므로 관련 기업의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신장은 주변국 환자 유치에 위해 변경도시에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므로, 한국의 의료기술, 병원경영 시스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o 신장과 인접한 카자흐스탄은 2015년 한국 의료관광객 수 5위, 1인당 평균 진료비에서 2위인 점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선호도가 높은 국가임.

부표

지역별 '일대일로' 정책 발표 리스트

구분	문건명
베이징(北京)	-
톈진(天津)	天津市参与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实施方案
허베이(河北)	关于主动融入国家“一带一路”战略促进河北省开放发展的意见
산시(山西)	山西省融入“一带一路”建设总体实施方案
	山西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
내몽고(内蒙古)	内蒙古自治区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实施方案
랴오닝(辽宁)	关于贯彻落实“一带一路”战略推动企业“走出去”的指导意见
다롄(大连)	关于贯彻“一带一路”战略扩大国际经贸合作的实施意见
	大连市对接“一带一路”战略构建开放新格局发展规划(2016-2020年)
지린(吉林)	“丝绸之路经济带”建设与“光明之路”新经济政策对接合作规划
헤이룽장(黑龙江)	推进东部陆海丝绸之路经济带建设工作方案
	“中蒙俄经济走廊”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建设规划
상하이(上海)	上海推进“一带一路”战略实施方案
장쑤(江苏)	关于抢抓“一带一路”建设机遇进一步做好境外投资工作的意见
	“一带一路”与长江经济带战略框架下我省物流业发展的思路与对策
	江苏省对接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实施方案

63) 한국교통연구원(2016. 11. 15).

64) <신실크로드 중신장> ③ 서역에 부는 한류열풍 “런닝맨 보고, 한국과자 먹고”(2015. 7. 9), 연합뉴스.

		关于落实国家“一带一路”战略部署建设沿东陇海线经济带的若干意见
	렌윈강(连云港)	关于推进2015年“一带一路”交汇点建设工作实施方案
	저장(浙江)	浙江省参与“一带一路”建设实施方案(예정)
	닝보(宁波)	宁波参与“一带一路”建设行动纲要
	안후이(安徽)	安徽省参与“一带一路”建设实施方案(예정)
	푸젠(福建)	福建省21世纪海上丝绸之路核心区建设方案
	취안저우(泉州)	泉州市建设21世纪海上丝绸之路先行区行动方案
	장시(江西)	关于积极参与“一带一路”战略的措施和意见
		江西省参与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实施方案
		关于加快融入“一带一路”战略鼓励企业参与国际合作实施方案
	산둥(山东)	山东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
		关于推动工程建设企业参与“一带一路”建设的实施意见
	허난(河南)	河南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
	후베이(湖北)	湖北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实施方案
	후난(湖南)	湖南省对接“一带一路”战略行动方案(2015-2017年)
		湖南对接国家“一带一路”战略工作方案
		湖南省对接“一带一路”战略推动优势企业“走出去”实施方案
		湖南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实施方案
		指引湘企对接“一带一路” 湖南按产业和国别提出指导意见
	광둥(广东)	广东省参与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实施方案
	선진(深圳)	关于大力发展湾区经济建设21世纪海上丝绸之路桥头堡的若干意见
	광저우(广州)	广州市建设海上丝绸之路三年行动计划
	광시(广西)	广西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思路与行动
	하이난(海南)	-
	충칭(重庆)	贯彻落实国家“一带一路”战略和建设长江经济带的实施意见
		重庆落实一带一路和建设长江经济带三年行动计划
	쓰촨(四川)	关于推进对外经济合作参与“一带一路”工作方案
		“一带一路”战略“251”三年行动计划实施方案
		贯彻落实国家“一带一路”发展战略实施方案
		推进“一带一路”建设标准化工作实施方案
	청두(成都)	成都市融入“一带一路”国家战略推动企业“走出去”五年(2016-2020年)行动计划
	구이저우(贵州)	贵州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
	윈난(云南)	“一带一路”建设云南省实施方案与行动计划
	시창(西藏)	-
	산시(陕西)	丝绸之路经济带新起点建设重点工作实施方案
		陕西省“一带一路”建设2015年行动计划
		陕西省推进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2015-2020年)
		陕西省“一带一路”建设2016年行动计划
	시안(西安)	关于加快建设丝绸之路经济带建设新起点的实施方案
		关于系统推进全面改革创新试验打造“一带一路”创新中心的实施意见
	간쑤(甘肃)	丝绸之路经济带甘肃段建设总体方案
		关于印发丝绸之路经济带甘肃段“6873”交通突破行动实施方案*
	란저우(兰州)	兰州市贯彻落实“一带一路”建设战略规划实施方案
		兰州新区参与“一带一路”建设实施方案
	칭하이(青海)	青海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
	닝샤(宁夏)	关于融入“一带一路”加快开放宁夏建设的意见
		贯彻落实国家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战略规划重要政策举措分工方案
	신장(新疆)	新疆生产建设兵团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的实施方案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문자료]

- 「<신실크로드 申新張> ③ 서역에 부는 한류열풍 "런닝맨 보고, 한국과자 먹고"」. 2015. 연합뉴스. (7월 9일)
- 「인천항-유럽 잇는 '한-중-러 물류 루트' 개통」. 2016. 연합뉴스. (1월 27일)
- 「중국-카자흐스탄 합자건설 물류기지, 랴오닝강에 정착」 (2014. 5. 29), 전북도민일보.
- KIEP 북경사무소. 2016.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행보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4월 19일)
- 노수연. 2015. 「중국 '일대일로' 주요지역의 투자환경과 활용전략: 5개 성(省)을 중심으로」.
- 노수연, 김홍원. 2013. 「중국 금융개혁 시범추진 현황과 평가: 저장, 광둥, 푸젠성」. 『중국 성(省)별 동향브리핑』.
- 노수연, 이한나. 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창장삼각주지역」.
- 이동률. 2016. 「일대일로'와 중국외교」,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 이희욱. 2016. 「일대일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 장원령. 2016. 「일대일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 페이성. 2016. 「일대일로'와 지역질서」.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중국 IRU가입으로 유라시아 대륙 복합운송 활발해질 전망」. (11월 15일)

[중문자료]

- 「“连新亚”班列运行1周年」. 2015. 人民网. (12월 16일)
- 「“辽满欧”“辽蒙欧”“辽海欧”运输通道加速构建」. 2015. 中国新闻网. (12월 27일)
- 「“三星班列”启程 开启中韩俄国际物流大通道」. 2016. 中新网. (1월 27일)
- 「“一带一路”交汇点落定江苏：出海口连云港最受宠」. 2015. 凤凰网. (1월 30일)
- 「“哈铁快运合作三方协议”在西安国际港务区签署」. 2015. 陕西传媒网. (6월 24일)
- 「“海丝”牵线助推泉州品牌国际化」. 2015. 泉州晚报. (4월 29일)
- 「《山东省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实施方案》对外公布」. 2016. 大众日报. (4월 29일)
- 「193名港澳台侨人士莅会 关注海丝、自贸区建设」. 2015. 福建侨报. (1월 30일)
- 「国家发改委已与18省份建立推进国际产能合作委省协同机制」. 2016. 中国改革报. (3월 15일)
- 「今年新疆推进三大通道建设」. 2015. 凤凰网. (3월 30일)
- 「大连港开通“辽满欧”商品车过境班列」. 2016. 辽宁日报. (7월 31일)
- 「落实国家“一带一路”战略部署建设沿东陇海线经济带新闻发布会」. 2015. 江苏省人民政府网. (8월 20일)
- 「连云港物流合作基地写入中哈联合公报」. 2015. 光明网. (12월 16일)
- 「辽宁一带一路国际合作公司和乌干达辽沈工业园战略合作」. 2016. 凤凰遼寧. (3월 25일)
- 「娄勤俭：陕西接轨“一带一路”大战略」. 2015. 人民日报海外版. (9월 18일)
- 「满洲里六成过境班列来自“辽满欧”」. 2016. 辽宁日报. (9월 16일)
- 「文莱-广西经济走廊成为“一带一路”产业合作新平台」. 2016. 中国新闻网. (1월 26일)
- 「福建深耕海洋产业 细作海上粮仓」. 2016. 经济日报. (7월 21일)
- 「福建再出海一带一路：如何不一厢情愿」. 2015. 经济观察报. (4월 5일)

- 「北部湾港：“一带一路”龙头港口或引境外战投」. 2015. 中国证券网. (4月 27日)
- 「丝路经济带抢跑现象背后:多省出现同质化竞争」. 2015. 瞭望. (1月 4日)
- 「山东参与建设“一带一路”总体构想」. 2016. 大众日报. (7月 22日)
- 「西咸新区携手俄罗斯“硅谷”共建中俄丝绸之路高科技产业园」. 2014. 华商报. (10月 20日)
- 「省政府与国家发改委建立推进国际产能合作委省协同机制」. 2016. 陕西省发改委. (3月 10日)
- 「新“海丝”路上的“先行区”——专访福建泉州市市长康涛」. 2016. 瞭望东方周刊. (1月 21日)
- 「信贷“一带一路” 银行谋万亿“产能输出”市场」. 2015. 中国经营报. (11月 23日)
- 「十三五广西重大交通项目总投资超万亿」. 2015. 广西新闻网. (8月 20日)
- 「阿拉山口综合保税区为一带一路添彩」. 2016. 中国网. (6月 1日)
- 「广西“一带一路”实施方案出炉提出八大合作重点」. 2016. 广西日报. (2月 2日)
- 「广西南宁规划建设中国一文莱农业产业园」. 2015. 中国新闻网. (3月 30日)
- 「威海,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示范区」. 2015. 威海网. (2月 27日)
- 「一带一路项目清单浮出 国家层面项目超过900个」. 2015. 上海证券报. (5月 29日)
- 「第三个中新合作项目落户重庆 西部航空物流业受益」. 2015. 21世纪经济报道. (11月 10日)
- 「中国—东盟交通部长特别会议联合声明发布」. 2013. 中国新闻网. (9月 2日)
- 「中国—东盟信息港股份有限公司成立 构筑“信息丝绸之路」. 2016. 人民网—广西频道. (6月 19日)
- 「中国—东盟港口合作再添新成果 提速“海上桥梁”合作」. 2016. 中国新闻网. (5月 27日)
- 「中国—东盟航线及航线服务项目启用 新航线开通」. 2016. 广西新闻网. (5月 28日)
- 「中国—东盟海洋合作中心领导小组成立」. 2015. 中国海洋报. (8月 21日)
- 「借力海丝, 福建经贸打好“东盟牌」. 2016. 福建日报. (4月 17日)
- 「厦门境外投资服务平台将于下周正式上线打造“走出去”窗口城市」. 2016. 厦门日报. (8月 19日)
- 「陕西打造“一带一路”五大中心」. 2015. 上海证券报. (8月 13日)
- 「港口城市合作推动中国—东盟直航航线开通」. 2016. 经济参考报. (5月 24日)
- 康霖·罗亮. 2014. 「中国—东盟海上合作基金的发展及前景」, 《国际问题研究》, 2014年 第5期.
- 国家发展改革委. 2014. 「关于印发大连金普新区总体方案的通知」. (7月 12日)
-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 2015.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国家发展改革委国际合作中心. 2016. 「关于国际产能合作若干问题的释疑」. (7月 7日)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5. 「国家发改委与山东省政府建立推进国际产能合作委省协同机制」. (12月 21日)
- 国务院. 2015.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5月 31日)
- 大连市人民政府办公厅. 2016. 「关于印发大连市对接“一带一路”战略构建开放新格局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7月 28日)
- 辽宁省人民政府. 2015. 「辽宁省开放驱动战略实施方案的通知」. (9月 12日)
- 辽宁省人民政府办公厅. 2015. 「关于贯彻落实“一带一路”战略推动企业“走出去”的指导意见」. (1月 21日)
- 福建省发改委·福建省外办·福建省商务厅. 2015. 「福建省21世纪海上丝绸之路核心区建设方案」. (11月 17日)
- 福建省人民政府. 2016. 「关于推进综合交通“五个工程”建设实施意见的通知」. (9月 1日)
- 福州市海洋与渔业局. 2015. 「2015年福州市远洋渔业专项资金补助项目分配方案」.
- 山东省人民政府. 2016.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3月 4日)
- 新疆生产建设兵团. 2016. 「兵团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重点项目清单」.
- 新疆维吾尔自治区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新疆维吾尔自治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8月 19日)
- 广西壮族自治区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广西参与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思路与行动」. (6月 21日)
- 长沙市人民政府. 2016. 「长沙市“十三五”规划纲要」. (1月 21日)

- 程默, 程丽辉. 2015. 「西安建设丝绸之路经济带新起点发展报告」, 『丝绸之路经济带发展报告(2015~2016)』.
- 赵可金. 2016a. 「福建要打造带动腹地发展的海上合作战略支点」, 凤凰国际智库.
- _____. 2016b. 「广西可将“一带”与“一路”有机衔接」, 凤凰国际智库.
- 中国社会科学院一带一路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2016)』.
- 陕西省人民政府. 2016. 陕西省“一带一路”建设2016行动计划(5月26日)
- 陕西打造“一带一路”五大中心. 2015. 上海证券报.(8月13日)
- 湖南省人民政府. 2015. 「湖南省对接“一带一路”战略行动方案(2015-2017年)」.(8月14日)
- 胡祖铨. 2016. 「“一带一路”的基本政策」, 国家信息中心.(3月25日)

[웹사이트]

- 한중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www.ytckip.gov.cn/cn/index.asp>(검색일: 2016. 9. 28).
- IFEZ 홈페이지. <http://www.ifez.go.kr/frt/subMain1.do>(검색일: 2016. 9. 28).
- 福州市投资促进局. http://www.fuzhou.gov.cn/zfxxgk/bmxxsq/bmxx/bmxx31_1/gkml/201512/t20151230_1017245.htm(검색일: 2016. 9. 18).
- 西安市会展业发展办公室. http://www.xahzw.gov.cn/ptl/def/def/index_1272_4383_ci_trid_1826687.html(검색일: 2016. 11. 28).
- 新华福建. <http://www.fj.xinhuanet.com/gdft/50/index.htm>(검색일: 2016. 9. 18).